수박 사들고 경로당 찾아 어르신 건강 살펴

용호2동 독지가 삼계탕 대접.

감만1동 각급 단체원 경로당 수박 전달.

우암1동 홀로어르신 점심 대접

감만2동 새마을부녀회 경로당 수박전달.

문현3동 적십자부녀봉사회 홀로노인 위로 행사.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삼계탕데이 행사.

줄잇는 2012 행복 나누기

○…**남구**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의 하나로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39명을 대상으로 경북 고령 일대 대가야박물관과 개실마을을 탐방하는 '대가야 그곳에 가다!' 체험 행사를 열었다.

○…**대연5동** 12통 주민 정동주씨는 지난달 25일 쌀 2포를 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양산박식당(대표 최영순)에서는 지난 7일 쌀 5포를 기탁,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했다.

○…**용호2동** 신왕길(대강볼트&너트대표)씨는 지난 2일 관내 음식점에서 더위에 지친 홀로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을 대접하며 위로 격려했다. 용호2동 장학회(회장 최주석)는 신용호동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6명의 학생에게 모두 3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50대 여성은 좋은 일에 써 달라며 5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성금은 일천원사랑 이웃돕기 성금 통장에 입금됐다.

○…**용호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정미)는 지역의 홀로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구르트 배달 안부 사업을 추진, 건강을 살피며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익명의 독지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선풍기 8대를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용호4동은 지난 7일 관내 경로당 6곳을 방문, 냉방시설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어르신들에게 안내했다. 수박도 함께 전달했다.

○…**감만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재환)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수광),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남희) 등 3개 단체는 지난 8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경로당 14개소를 방문, 수박을 전달했다.

○…**감만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우정애)는 지난달 17일 관내 경로당 7개소를 방문, 수박과 떡, 돼지고기 등 1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전달했다.

○…**우암1동은** '우암양달 행복만들기' 시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천연화장품·액세서리 만들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만든 천연화장품과 액세서리를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70명에게 나눠줬다. 송세우(대동상사 대표)씨는 지난 7일 관내 식당에서 홀로 어르신 70명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문현3동** 적십자부녀봉사회(회장 박선자)는 지난 14일 관내 홀로어르신 30명을 지역 식당으로 초청,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문현4동** 부산문현노인대학(학장 임종채)는 지난달 25일 동주민센터에서 제17기 문현노인대학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노인대학 학생 120명과 문현4동 각급 단체원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강귀애 학생 등이 24명이 표창을 받았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 지역의 어르신 500명을 복지관으로 초대해 '효도삼계탕'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청장과 서영교 국회의원, 시·구의원, 각급 단체장 등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말복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복지관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특별 보양식인 삼계탕을 대접하게 됐다.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정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 결혼이민여성 제과·제빵만들기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요리교실에는 20여명의 이주여성이 참여해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했다.

○…**성소치과**(원장 김영길)는 지난달 27일 개업 축하화환 대신 받은 130만원 상당의 쌀을 어려운 이웃에 써 달라며 남구청에 기탁했다.

○…**제14기 오륙도여성대학 봉사회**(회장 박영희) 회원 20여명은 매주 2회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중식도우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로당 탐방 – 대연4동 나눔경로당

건강체조 통해 건강 다져

나눔경로당 회원들이 밴드를 이용한 체조를 시범보이며 건강한 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해 리모델링 최고 시설 자랑
오순도순 이야기꽃 피우며 화합

한낮의 뙤약볕이 주택가 골목에 인적조차 뜸하게 만들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하고도 초순이었다.

낮은 대문을 지나 들어선 그곳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 그 흔한 선풍기도 부채 하나도 없었다. 13명의 회원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는 모습은 꼭 유치원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질문을 던지면 한걸음 다가앉으며 대답하고 자세를 고쳐 가며 여기저기서 연신 말이 오갔다. 여기는 대연4동 할머니들의 사랑방, 대연4동 나눔경로당이다.

방이 셋, 주방, 화장실, 거실을 갖춘 깔끔한 실내는 사랑방을 아끼는 할머니들의 노고가 그대로 느껴졌다. 대구 딸네 집에 가신 김남순 회장 대신 총무 이순이(67) 할머니가 조곤조곤 얘기해 준다. "회원이 많아도 돌아서서 욕하는 법이 없고 좋은 것은 나누고 앞 다투어 식사당번도 열심히 해 화합이 잘되는 것"이 나눔 경로당의 자랑이다.

45명의 회원 중 최연소인 총무는 궂은 일은 도맡아하는 일꾼이다. 지난해 6월, 경로당이 문을 열기까지 구청과의 복잡한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바지런하고 능력 있는 총무로 급부상했다.

최영애(80)할머니는 최고령인데도 매일 출석해 맏언니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만나면 반갑고 웃고 즐기는 동안 후딱 하루가 간다"는 할머니들은 점당 10원짜리 화투도 친다. 재미삼아 하는 놀이라 끝나면 돈은 다 돌려준다.

점심은 집에서 먹고 오기도 하고 각자 집에서 갖고 온 반찬에다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두레반에 둘러앉아 맛난 점심을 먹으면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다.

커다란 창문 앞에선 앵두나무를 흝고 들어온 시원한 바람은 염천 더위도 잊게 만든다.

뭐니 뭐니 해도 노년엔 건강이 최고. 일주일에 두 번(월·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체조를 배우는 시간엔 경로당은 운동장이 된다. 가만히 앉아 소일하는 할머니들에게 체육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오후다. 남구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을 방문해 당뇨검사, 혈압체크 등 기초건강검사도 실시한다.

경로당 자랑으로 신난 할머니들의 모습은 마치 수줍음 많은 여고생을 보는 듯 풋풋하고 정감이 넘쳤다.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이두래 기자

남구동행푸드마켓 기탁성품 부산 최고

9천만원 상당 물품 답지
'복지남구' 실현에 앞장서

남구동행푸드마켓(이하 남구푸드마켓)이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부산 최고의 푸드마켓으로 자리잡고 있다.

남구푸드마켓은 부산시 푸드마켓 상반기 기탁성품 집계 결과 남구가 약 9천만원 상당의 실적을 올려 부산시 11개 푸드마켓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2명의 후원자가 모두 1만5,880점의 성품을 남구푸드마켓에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995여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부산시 전체 기탁성품(2억8,975만원 상당)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남구푸드마켓에 성품이 답지하고 있는 것은 설립 취지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연3동 박덕자씨는 매달 천연 수제비누 10점을 보내오고 있으며 '대전 대패삼겹살'에서도 매월 4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후원하고 있다. '엄마손 충무김밥'에서는 쌀을, '나이키 경성대점'에서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보내오고 있다. 이밖에도 대연동 '오뜨베이커리'에서는 매월 4차례 빵을 기부하는 등 물품을 기탁하는 주민들과 단체가 늘고 있다.

김금빈 실장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움직임이 동행푸드마켓에도 점차적으로 일고 있다"며 "무엇보다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남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마켓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확산! 푸드마켓·푸드뱅크 식품기부

□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개인 및 기업 등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등에 전달함으로서 결식문제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 **기부자 혜택**

• 기업 및 개인이 푸드마켓(뱅크)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세제혜택

□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용자**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탈락자, 차상위 계층과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정, 재가어르신, 재가장애인, 편모·편부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6개월마다 새로 선정된 800명에게 월2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지급.

□ **기부가능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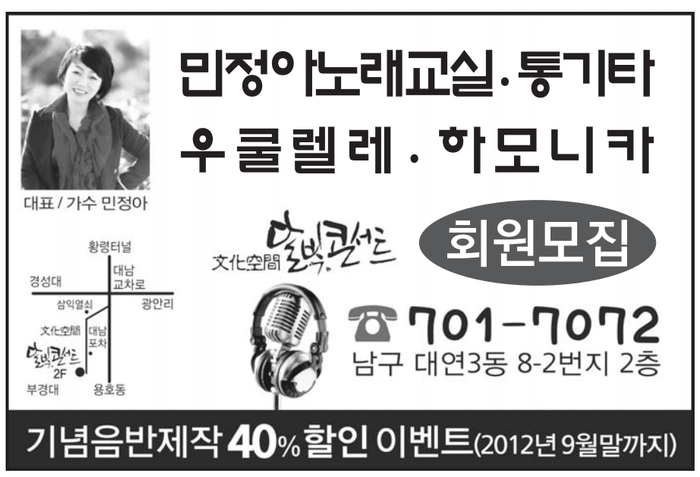
주식류	밥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식류	국류, 탕류, 반찬류, 햄·어묵제품류, 기타 부식류
간식류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견과류, 기타 간식류
식재료	곡류, 콩류, 야채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류
생활용품	비누, 치약, 샴푸, 기저귀, 여성용품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남구동행푸드마켓(☎638-1377), 남구기초푸드뱅크(☎647-3655)

최민식의 진실 사랑 이야기

부산의 한 사찰에서 만난 모자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엄마의 표정과 꼬마의 표정이 상반되었다. 이러한 장면도 순간포착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항상 찍을 수 있는 준비와 보는 눈을 키워야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다.

사진작가·대연1동



2012년부터 농식품 국가 인증 표지 『단일화』 시행

《주요 내용》

◇ '12.1.1일부터 '초록색 사각 표지(Logo)' 형태만 확인해도 농식품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 표지 단일화

– 다양한 9개 형태의 인증제도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

※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표지(기존 포장재) 사용은 2년간('13년말까지) 병행 사용 가능

(예시)
유기농 (ORGANIC)
농림수산식품부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형태**)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도장' 모양의 사각 프레임

(**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